[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성명서]

8억원 체불 PDS 김선우 처벌! 임금체불 해결!

노동부와 한국지엠은 책임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한국지엠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PDS)가 한국지엠비정규직 40명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총 8억여 원을 떼먹은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 임금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노동자들은 막막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작 임금을 떼먹은 하청업체 대표는 철면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할 노동청과 원청 한국지엠은 뒷짐지고 나몰라라하고 있다.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는 한국지엠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와 아무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한다.

8억여 원 떼먹고 국가 대지급금으로 받으라더니, 처벌불원서까지 요구

작년 12월 23일, 2차업체 피디에스 김선우 전 대표는 한국지엠의 1차 업체 비티엑스(BTX)와의 업체 계약 해지를 빌미로 노동자 40명의 한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체불했다. 1인당 2천만 원 상당이다. 임금체불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노동자들의 불안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스럽게 국가에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으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리자를 동원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요구했다.

그동안 원청인 한국지엠으로부터 꼬박꼬박 받아온 노동자들의 피같은 임금을 탈취하고도 처벌은 피해가겠다는 발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회사 적자와 파산을 운운하는 그가 업체 계약이 해지된 바로 다음날 자동차 관련 신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미꾸라지 같은 사업주에게 느슨한 법망은 관대하다. 임금 체불 범죄자 처벌을 피하고 난 후 또 무슨 일을 기획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1차 업체와 한국지엠의 책임이 크다

이 사태는 피디에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디에스의 전신이었던 '도원' 역시 퇴직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다. 2차 하청의 불법행위와 체불이 반복됨에도, 1차 하청인 BTX와 원청 한국지엠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방기해 왔다. 사업장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생존권 침해에 대해 "우리는 인건비를 줬다"며 뒷짐 지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 원청의 비용 전가 구조상 하청의 아랫단계로 내려갈수록 재정건전성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원청은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한국지엠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GM협력사 행동 강령'에 따라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질적 원청인 한국지엠 그리고 노동부가 책임지고 나서라!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건비를 줬으니 나는 모른다는 발뺌 것이 아니라 원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사업장 내 안전이나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인천에서 규모있는 사업장이자 스스로 ESG경영을 자부하고 있는 한국지엠은 사업장 안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노동부도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업체라면 집중 관리했어야 한다. 지금처럼 업체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마치 컨설팅하듯 행동하는 태도는 가뜩이나 힘들고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의 당당한 결의와 행동을 지지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피디에스 사장의 얄팍한 협박에 분노하면서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우리는 지회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되찾고 악덕 사업주를 영원히 퇴출시키는데 앞장서며 투쟁할 것이다.

2026년 3월 13일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인천지부, 인천지부 KM&I지회/동광기연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한국펠저지회/GMTCK지회/부평공단지회, 구미지부 남선오토지회,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